

SESSION 05

The King was Crucified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Session summary

In this session, we will not only reflect upon the manner of Jesus' death, but also the meaning. Jesus' crucifixion was brutal and unjust, and yet, He willingly laid down His life in obedience to the Father and for the salvation of sinners. As the substitute sacrifice, Jesus died in our place. As the crucified King, He demonstrated the true wisdom and power of God. And as the forsaken Son, He endured the punishment of our sin so we could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뿐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잔혹하고 부당했지만,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들로써 그분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Scripture

Matthew 27:15-51 마태복음 27:15-51

The Point

Jesus is the King who willingly took upon Himself the punishment for sin.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스스로 짊어지신 왕이십니다.

INTRO/STARTER 5-10 MINUTES

Option 1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sacrifice*? Maybe your mind goes to the game of baseball and an at-bat scenario that results in an out but moves a base runner into scoring position. Maybe you think of giving up social media around the season of Lent or sacrificing that planned outing with friends due to some unexpected family emergency. While all of these are sacrifices in some sense, none really convey the power of the biblical imagery of a sacrifice.

For most of the first-century world, the word *sacrifice* brought to mind blood. Sacrifice carried the image of a bull, a goat, or other such animal lying upon an altar and struggling as its life drained from its body.

Jesus was the perfect, once for all substitute sacrifice for our sins. He took the place of the bulls and goats—we would never need to sacrifice animals again. But His death was no less gruesome than theirs—His blood was spilled as He was beaten, crowned with thorns, and finally nailed to the cross.

Why is it important to not only stress the fact that Jesus died for our sins, but also the manner in which He died?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아웃되지만 주자가 득점권에 진루하는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를 끊거나,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희생'이라는 단어는 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단 위에 눕혀져 생명이 빠져나가는 황소나 염소 같은 짐승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완벽한, 단 한 번의 대속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황소와 염소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다른 동물들의 희생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는지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Option 2

Have you ever seen a stalagmite? What at first appears to just be a rocky column that stretches from the floor of a cave upward is actually the result of mineralized water that trickles down from cracks in the cave ceiling. Over time, a carbonate mineral called *calcite* solidifies in the shape of a cone. Stalagmites look like they rise on their own from the floor, but in reality, they are formed from the dripping from above. Over time the stalagmite may rise to connect with the stalactite above to form a single column.

Like stalagmites, salvation always begins from above. Grace doesn't rise; it falls. According to the Bible,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rise up from the ground and stretch our way to God. The gravity of sin is simply too strong. No matter how many "good" actions we perform, how many times we go to church, or how good our intentions may be, we cannot get to the ceiling of God's love through our own means or in our own strength. Salvation falls in one direction—top to bottom. And we see this clearly in our session today as we look at Christ's atoning blood being poured out on the cross for our sins.

What are some ways we seek to make ourselves acceptable to God? Why are these ways doomed to failure?

Why is it important to understand salvation as being top-down rather than from the ground up?

종유석을 본 적이 있나요? 동굴 바닥에서 위로 뻗어 있는 단순한 돌기둥처럼 보이는 종유석은 사실 동굴 천장의 갈라진 틈에서 흘러내린 광물질이 녹아 굳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해석이라는 탄산염 광물이 굳어져 원뿔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종유석은 마치 바닥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유석은 위쪽의 석순과 연결되어 하나의 기둥을 이루기도 합니다.

종유석처럼 구원도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 땅에서 솟아올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자주 교회에 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이나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방향,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살펴보면서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왜 이러한 방법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HIS STORY 15-20 MINUTES

THE POINT

Jesus is the King who willingly took upon Himself the punishment for sin.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스스로 짊어지신 왕이십니다.

Characters

Jesus: the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Pontius Pilate: Roman governor of Judaea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Barabbas: murderer and rebel who was set free from prison in exchange for Jesus' crucifixion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2위격

본디오 빌라도: 예수의 지상 사역 당시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

바라바: 살인자이자 반역자였으나 예수의 십자가형을 대신하여 감옥에서 풀려남

Plot

After being arrested under the darkness of night, Jesus was then ushered off before an agitated judge and jury all seeking one thing—His immediate execution. However, as we have seen time and time again throughout Scripture, what man intends for evil God intends for good. 한밤중에 체포된 예수님은 격앙된 재판관과 배심원들 앞에 끌려가셨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즉각적인 처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사람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JESUS TOOK BARABBAS' PLACE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After being arrested and falsely accused by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Jesus was then taken to the governor, Pontius Pilate, for questioning and sentencing. What would seem like a strange series of events unfolded, which allows us to glimpse Jesus' innocent life being given for those who are guilty.

15 Now at the feast the governor was accustomed to release for the crowd any one prisoner whom they wanted. 16 And they had then a notorious prisoner called Barabbas. 17 So when they had gathered, Pilate said to them, "Whom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Christ?" 18 For he knew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delivered him up. 19 Besides, while he was sitting on the judgment seat, his wife sent word to him,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righteous man, for I have suffered much because of him today in a dream." 20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destroy Jesus. 21 The governor again said to them,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And they said, "Barabbas." 22 Pilate said to them, "Then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ey all said, "Let him be crucified!" 23 And he said,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shouted all the more, "Let him be crucified!" 24 So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aining nothing, but rather that a riot was beginn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before the crowd, saying,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see to it yourselves." 25 And all the people answered,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26 Then he released for them Barabbas, and having scourged Jesus,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Matt. 27:15-26)

Pilate was looking for a way out. He knew the priests and elders all too well and was not blind to the situation before him. He knew Jesus was undeserving of death, but he also knew that the chief priests would stop at nothing to silence any and all perceived threats to their position and privilege.

Knowing that personally confronting the priests and elders during the Passover would be politically dangerous, Pilate considered the potential of having the people put the pressure on their leaders. If the crowd were to excuse Jesus, then the elders and priests would have no recourse but to drop their accusation against Him. After all, they had been too concerned about the crowd's perception of Jesus as a prophet to make a public arrest (Matt. 21:46).

Barabbas was a murderer and rebel. He deserved the punishment that awaited him. Even if the crowd would not proclaim Jesus innocent, surely they would recognize His relative innocence when contrasted with a man like Barabbas. Pilate's plan was brilliant, but it was doomed by the sinfulness of man and God's divine plan. On that day, the guilty would walk free while the innocent would walk to death.

In Barabbas' release, we see a picture of our own promised release. Like Barabbas, we are guilty of rebellion, but not against the Roman Empire. We have each conspired to commit cosmic treason against the Lord and rightly deserve death. If not for Jesus, we too would stand before the Judge's seat to be convicted. But as Jesus took Barabbas' place before Pilate, so He takes the place of those who love and trust Him before His Father.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어 거짓 고발을 당한 후, 심문과 판결을 받기 위해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의 무죄한 생명이 희생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5 명절에 총독은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씩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16** 그때 그들에게는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17** 사람들이 모이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 **18**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 게다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20**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21** 총독이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입니다."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23**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왜?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24** 빌라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 **25**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있을지어다!" **26**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15-26)

빌라도는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눈앞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어떤 존재라도 침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기간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백성들을 이용해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군중이 예수를 용서한다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예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길까 봐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마태복음 21:46).

바라바는 살인자이자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군중이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바라바 같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예수의 상대적인 무죄함을 인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빌라도의 계획은 훌륭했지만,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죄 있는 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무죄한 자들은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라바의 석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석방의 모습을 봅니다. 바라바처럼 우리도 반역죄를 저질렀지만,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께 대한 우주적인 반역을 공모했고,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재판관 앞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대신하셨듯이,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대신하십니다.

JESUS WAS MOCKED, TORTURED, AND CRUCIFIED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As Jesus was tortured and prepared for the cross, He was treated with contempt and mocked as the Messiah. He was given royal robes and a crown (of thorns)—the entire display a mockery of justice. Take a look:

27 Then the soldiers of the governor took Jesus into the governor's headquarters, and they gathered the whole battalion before him. 28 And they stripped him and put a scarlet robe on him, 29 and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s head and put a reed in his right hand. And kneeling before him, they mocked him, saying, "Hail, King of the Jews!" 30 And they spit on him and took the reed and struck him on the head. 31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stripped him of the robe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and led him away to crucify him. 32 As they went out, they found a man of Cyrene, Simon by name. They compelled this man to carry his cross. 33 And when they came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Place of a Skull), 34 they offered him wine to drink, mixed with gall, but when he tasted it, he would not drink it. 35 And when they had crucified him, they divided his garments among them by casting lots. 36 Then they sat down and kept watch over him there. 37 And over his head they put the charge against him, which read,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38 Then two robbers were crucified with him, one on the right and one on the left. 39 And those who passed by derided him, wagging their heads 40 and saying, "You who would destroy the temple and rebuild it in three days, save yourself!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e down from the cross." 41 So also the chief priests, with the scribes and elders, mocked him, saying, 42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He i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43 He trusts in God; let God deliver him now, if he desires him.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44 And the robbers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reviled him in the same way. (Matt. 27:27-44)

This passage of Scripture screams humiliation—torture, mockery, abuse, insults, and taunts. Jesus was a spectacle to be laughed at and disregarded by the soldiers and the spectators.

Who could endure such torture, especially when the endurance is a matter of choice and not a necessity? At any point Jesus could have resisted; at any point He could have fought back. His resistance is never futile, and yet, He endured.

This passage also screams humility—patience, love, grace, and mercy. Jesus on the cross was a spectacular drama showing just how far the Son of God was willing to go in perfect obedience to His Father, and we are encouraged to share in that same humility (Phil. 2:5-11).

The irony in this passage is thicker even than the blood. The King of kings was mocked by being called a king. He was told to display His glory by coming down for the cross, when doing so would have undone all that He was accomplishing for His glory. By saving Himself, He would sacrifice others. So, He stayed on the cross and endured the pain, the shame,

and the wrath, and we are the heirs to the benefits of His endurance.

예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그분은 메시아라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옷과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모든 것은 정의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7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그 앞에 모았습니다. 28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29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했습니다. 30 그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가져다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31 그들이 예수를 조롱한 후에 붉은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33 그들이 끌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끌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다),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으셨다. 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6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 예수를 지켰다. 37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글귀를 붙였다. 38 두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39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말했다. 41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42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43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지금 구원해 내라.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니 말이다.” 44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27-44)

이 성경 구절은 굴욕, 고문, 조롱, 학대, 모욕, 비웃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는 군인들과 구경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는 구경거리였습니다.

누가 그런 고문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그 고문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예수는 언제든 저항할 수 있었고, 언제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저항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인내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겸손, 즉 인내, 사랑, 은혜, 자비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드라마였으며, 우리도 그와 같은 겸손을 나누도록 격려받습니다(빌립보서 2:5-11).

이 구절의 역설은 피보다 더 강렬합니다. 만왕의 왕이 왕이라 불리는 것을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요구를 받으셨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남아 고통과 수치와 진노를 견디셨고, 우리는 그분의 인내의 축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JESUS SERVED AS THE SUBSTITUTE LAMB 예수님은 대속 어린양으로 섬기셨습니다.

How does a Father sacrifice His Son, especially when we know that this Father is good and loving? Precisely because He is good and loving, as is the Son. This sacrifice was plan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and this sacrifice had a holy purpose (Acts 2:23,36).

45 Now from the sixth hour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land until the ninth hour. 46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47 And some of the bystanders, hearing it, said, “This man is calling Elijah.” 48 And one of them at once ran and took a sponge, filled it with sour wine, and put it on a reed and gave it to him to drink. 49 But the others said, “Wait, let us see whether Elijah will come to save him.” 50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51 And behol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And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were split. (Matt. 27:45-51)

Jesus' cry should have resonated in the minds of the onlookers, but they missed His reference. These are the opening words of Psalm 22, a psalm dripping with messianic meaning (especially verses 1-2,6-8, and 12-18). Jesus was not calling upon Elijah, as the crowd supposed. He was identifying Himself as the One to whom the Psalm pointed and demonstrating the horror of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Then, with another cry, Jesus yielded up His spirit in death. In that moment, heaven and earth could take no more. A creation subjected to futility began to quake, and earth and rock split. With it, the veil in the temple that separated heaven and earth was split from top to bottom, signifying that this act was accomplished from above.

In the torn curtain, a message was proclaimed. A Son was rejected so that the Father would have many more sons and daughters. The Father forsook His only Son that He might extend forgiveness to a great many children. A Son's sacrifice was accepted in the holy of holies, so that all who trust in Him might be accepted before the very throne of God.

How does it affect you to know Jesus was forsaken and rejected so that you could have forgiveness for your sins?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희생시키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아들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은 세상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으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 2:23, 36).

45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6 아홉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47 곁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르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48 그들 중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스편지에 싼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꽂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 보자.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51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마태복음 27:45-51)

예수님의 외침은 구경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인데, 이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특히 1-2절, 6-8절, 12-18절). 예수님은 군중이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아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편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시며,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공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허무함에 굴복한 창조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땅과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과 땅을 가르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는 이 일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찢어진 휘장에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들이 거부당한 것은 아버지께서 더 많은 아들과 딸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이는 아들이 많은 자녀에게 용서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지성소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고 거부당하신 것이 당신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99 Essential Doctrines: Christ as Substitute 그리스도는 대속자로서

At the heart of the atonement is Jesus Christ substituting Himself for sinners as He died on the cross. This truth is see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Old Testament sacrificial system, which provided a picture of humanity's need for sin to be covered and guilt to be removed by an innocent sacrifice. Jesus perfectly revealed and did the will of God, taking upon Himself human nature with its demands and necessities and identifying Himself completely with humankind, yet without sin. He honored the divine law by His personal obedience, and in His substitutionary death on the cross, He made provision for the redemption of humanity from sin.

속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죄가 가려지고 죄책감이 제거될 필요가 있는 인류의 모습을 무죄한 희생 제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행하셨습니다. 인간 본성을 취하시고 그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시며, 죄 없이 인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CHRIST CONNECTION 그리스도 연결

Unjustly condemned to death, Jesus willingly took up His cross and suffered the judgment our sins deserve. At the moment He died, the curtain in the temple sanctuary was torn in two, signifying the truth that sinners have access to God through the blood of Christ. Jesus' crucifixion is the center of history, revealing God's holiness and justice, our sinfulness and unrighteousness, and Christ's humility and love.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는데, 이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우리의 죄악과 불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YOUR STORY 10-15 MINUTES

Group Questions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How do you think Barabbas responded to this turn of events in his favor? How should we respond to Jesus taking our place? Answers will vary.

What are some ways we can be guilty of choosing something or someone over Jesus? Answers will vary.

How do the details surrounding Jesus' physical torture and crucifixion affect you? Answers will vary.

How does the fact that Jesus' friends abandoned Him in His greatest need add to Jesus' suffering? Answers will vary.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를 갖고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서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나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문과 십자가 처형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그분을 버렸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의미를 더할까요?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YOUR MISSION 10-15 MINUTES

Head

Before God spoke light into existence, there was darkness. Before the Israelites' redemption from Egypt, the plague of darkness covered the nation. And at the crucifixion, darkness swallowed the whole land for three hours as a marker of the moment's cosmic significance.

What do the events at Golgotha demonstrate abou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love of the Son? Answers will vary. If a non-Christian asked you why Jesus died, how would you respond? Answers will vary, but should include something like: Jesus not only chose to bear the consequences that our sins deserve, but He also gives us His righteousness so that we can b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s a result.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재앙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순간의 우주적인 의미를 나타내듯 어둠이 온 땅을 삼 시간 동안 삼켰습니다.

골고다에서의 사건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이 당신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다양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Heart

The narrative of the events leading up to and including the crucifixion certainly does not do justice to the full horror on display. Black print on a Bible's pages can never fully express the scarlet blood flowing from a wounded back and pierced brow. A few paragraphs read in a matter of seconds cannot adequately convey the dread and shock of hours of torture Jesus experienced for the guilty. As Jesus marched to Golgotha, He did so not only in Barabbas' place, but also for all who would believe. He was crucified and condemned so that we might be ransomed and redeemed. He became

sin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 of God (2 Cor. 5:21).

How does knowing the extent of Jesus' sacrifice increase your love for Him? Answers will vary.

How does it affect you to know Jesus bore the punishment our sin's deserve? Answers will vary.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그 참혹함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책의 검은 글씨로는 상처 입은 등과 꿰뚫린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결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몇 단락의 글로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그 공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분은 바라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받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도록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고린도후서 5:21).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게 합니까?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Hand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that Jesus is the King who willingly took upon Himself the punishment for sin. In light of this, we don't need to be afraid of talking about sin and calling people to faith. Our Father does not abandon us on our mission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deed, through His Holy Spirit, He strengthens our faith and fuels our worship and witness.

How does the reality of what Jesus endured for us protect us from viewing evangelism simply as an obligation? Answers will vary.

Why is it important for Christians to first talk about sin when sharing the good news of what Christ has done for us? The bad news of our sinful condition and our need for a Savior must always precede the good news of forgiveness and salvation in Jesus. Without mention of sin, people will not necessarily understand what they are being saved from and so forth.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증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현실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단순히 의무로만 여기지 않도록 보호해 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먼저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나쁜 소식은 예수님 안에서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보다 항상 먼저 나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TIMELINE

The Crucifixion

Jesus as our substitute sacrifice.

He is Risen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Hearts on Fire

All Scripture points to Jesus.

Jesus Sends

The disciples witness the risen Christ and receive the peace He brings.

Overcoming Doubts

Thomas' doubts are satisfied when he sees and touches the risen Jesus.

Follow Me

Jesus' forgiveness and the call of every Christian.

LEADER PACK

For this session, refer students to pack item #7, which contains a quote poster related to the session.

ADDITIONAL INFO**Additional Resources**

Check out the following additional resources:

Leader Training Videos

One Conversations

Midweek Studies (to access your Midweek Study, go to lifeway.com/TGPRisenFAL17)

Circular Timeline Poster

App (for both leader and student)

Additional suggestions for specific groups are available at GospelProject.com/AdditionalResources

And for free online training on how to lead a group visit MinistryGrid.com/web/TheGospelProject